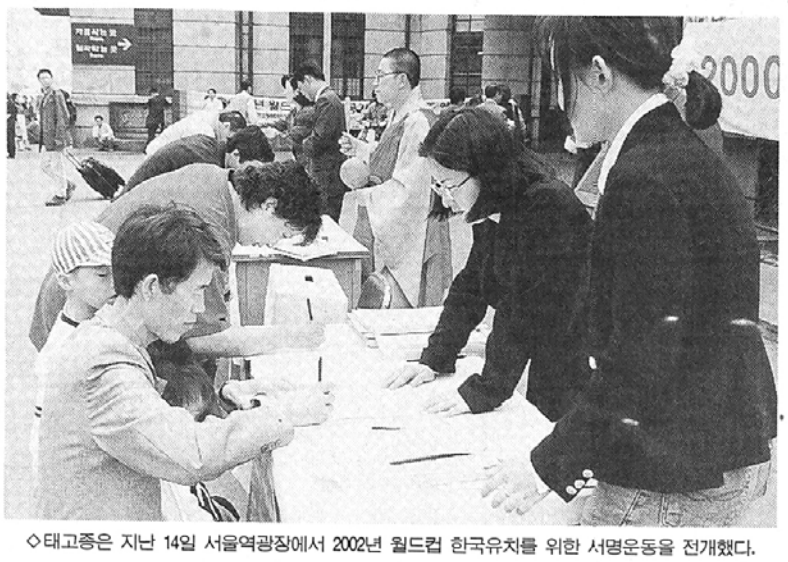
불교계에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 바람이 뜨거워지고 있다.

영국 로이터연합통신은 지난 16일 태고종 총무원의 2002년 월드컵유치 기원을 위한 아침기도 장면을 취재하고 한국불교계의 월드컵유치 열기를 각국에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세계 각국에 한국에서의 월드컵유치가 유력하다는 기사를 실어보냈다.

불교계의 월드컵유치운동은 태고종이 오는 29일 월드컵유치를 기원하는 대규모법회 개최와 지난 13일부터 21일에 걸쳐 '월드컵유치기원 3·7일기도'에 들어가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태고종은 5백만 종도의 원력을 모으기로 하고 전국 2천



◇태고종은 지난 14일 서울역광장에서 2002년 월드컵 한국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태고종 21일간 월드컵 유치 기원

14일 서명운동…29일 한강서 10만관등 영산법회

6백여 소속사암에서 동시에 아침예불과 사시불공 저녁불공 이후 월드컵유치를 기원하는 축원을 하고 있다. 총무원도 총무원장 혜초스님을 비롯하여 각급기관장·부장스님 10여명과 30여명의 종무직원들이 총무원 삼천불전에서 매일아침 9시 기도및 축원을 올리고 있다.

이와함께 태고종은 지난 1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총무원 간부스님 10여명과 직원3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2002년 월드컵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1천4백여명이 서명에 동참하여 '월드컵을 한국에서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국민적 열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지속적으로 벌이게 될 서명운동은 이달말에도 국내의 축구열기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국가대표팀과 외국팀과의 친선축구대회 경기장에서 계속 접수하여 국민홍보와 불자들의 원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태고종의 2002년 월드컵유치 성공기원 10만관등 영산대법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여의도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된다.

2천만 불자의 기원과 힘을 축제형식으로 구성하는 제1부 식전행사에서는 비행선 연막쇼등이 펼쳐지고 2부 기원법회 3부 영산재 4부 불자연예인 특별공연순서로 마련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북녘에 방송으로 초파일 법문"

한상길법사 진행 '우리곁으로 오신 부처님'

24일 대북종교방송 봉축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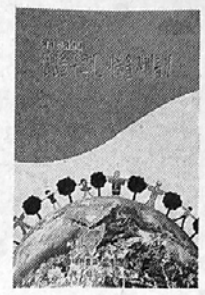
북녘땅 군인과 주민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문을 듣게 된다. 대북종교방송은 부처님오신날인 24일 한상길법사의 진행으로 방송법회를 열고 봉축법문 '우리곁으로 오신 부처님'을 방송으로 전한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된 대북종교방송은 휴전선 155마일 전지역 인민군과 북한주민이 청취가 가능하며 국방부 자유의 소리 확성기를 통해 불교는 매주 금요일 하루 4회에 걸쳐 방송되고 있다.

대북방송 봉축법문 '우리곁으로 오신 부처님'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북녘의 동포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620년전 룸비니동산에서 태어나 29세에 출가하시고, 6년의 고행끝에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맨발로 인도땅 곳곳을 다니시며 중생을 위해 45년간 법을 설하시다가 80세를 일기로 열반에 드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날입니다.

늦은 밤 추위와 졸음과 싸우면서 피곤한 몸으로 남녘을 향해 보초서고 계신 인민군 군관 하전사 여러분,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심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앞으로도 한량없는 백천억의 모습으로 우리곁에 오셔서 우리들을 종의 삶으로부터 주인의 삶으로 평등한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실것입니다.

북녘의 동포여러분, 마음속에 등불을 켜고 마음속의 번뇌를 씻어냅시다. 그리하여 남북동무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깨동무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통일의 선봉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종교방송법회 공덕으로 모든 북녘의 동포들과 인민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이 보람과 영광의 삶이 되기를 두손모아 축원드립니다."



'환경수행 안내서' 발간

스님과 불자들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수행 안내서가 최초로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은 6월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6월 1~2일 여는 '청정국토 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환경수행 지침서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를 발간했다. 집필은 한국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이 맡았다.

국립공원 지키기 운동과 사찰내의 생활협동조합운동, 다양한 환경교육과 환경캠페인 운동 등 불자들이 알아야 할 환경관련 정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경전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불자들에게 교리와 수행의 측면에서 환경운동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통일기원 점등법요식

극락사, 월정리 전망대

포천 극락사(주지 신명)는 지난 13일 오후 육군 청성부대 월정리전당대에서 전총무원장 서봉스님 전교무부장 우담스님 안정사주지 벽파스님 남재준 청성부대장 김호연 철원군수 임승중 철원경찰서장 극락사신도 동방대학생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기원 점등 법요식을 거행했다.법요식에서 서봉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온누리에 밝혀 북한 동포들의 평화와 안락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 극락사주지 신명스님은 육군 청성부대에 위문품과 운동용품을 전달했으며 청성부대에서는 서봉스님과 신명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포교지 의식테잎 제작

군승단, 군법당 배포

군승단(단장 강남석)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군불자 신행진작을 위해 군불교 포교지와 법회의식테잎을 제작, 지난 15일 선보였다. 군승단은 설법과 지상교리강좌, 법당탐방, 신앙상담 등을 실은 월간 '군불교지'를 발간하고, 전국 군법당에 창간호 2만5천부를 배포했다.

또 군승단은 법사가 직접 법회를 주관하지 못하는 각 예하대 법당의 소규모법회를 군종병이 인례자가 돼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한 법회의식테잎을 제작하고 각 예하부대에 보냈다.

스승의날 보은의 꽃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중앙승가대학 학인스님이 교수 태원스님(불교학과 학과장)에게 보은의 꽃을 달아 주고 있다. 이날 승가대학에는 정진관에서 대동제 개회식에 앞서 스승의날 기념식을 봉행했다.

대성사 '찬불가의 밤'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용암)는 지난 12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찬불가의 밤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의 1부에서는 민요연곡이 2부에서는 음악대서사시 '붓다'가 공연, 대성사 풍락합창단 대구불교대합창단 소프라노 김성녀씨가 출연했다.

봉축 단신

26일 청소년 예술제

통도사 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오는 26일 오전 9시 부산교육대학에서 제5회 전국청소년예술제를 개최한다. 시조백일장과 시조창 경창대회로 나누어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직교사들이 참가하는 지도교사부와 초·중·고생들이 참가하는 학생부로 진행된다. 시조창은 학생부의 경우 평시조 사설시조 질음시조등 12곡중 한곡을 선택하며 지도교사부의 예선은 질음시조로 본선은 평시조로 한다.

예술제에 참가할 사람은 참가신청서와 학교장추천서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문의 (051)816-2241

신행단체 장기자랑

5월 한달동안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다양한 봉축행사를 벌이고 있는 봉은사(주지 무상)는 부처님오신날 전야제로 23일 저녁 6시부터 대웅전 앞에서 공옥진씨 초청공연과 신행단체 장기자랑을 갖는다. 봉은사는 지난 20~22일 3일동안 봉은사앞 도로에서 영업용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호신염주달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불교문화대제전 '취소'

영등포구청 상업성이유 허가 안해
불교TV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계획

2천만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속에 오는 23일부터 여의도광장에서 펼쳐질 예정이었던 불교문화대제전이 관할관청인 영등포구청의 횡포로 사실상 무산됐다. 〈77호 19면 보도〉

이같은 사태는 당초 7천평 규모로 열릴 예정이던 불교문화대제전 중 주요부분인 생활관 3천평에 대해 영등포구청이 지난 10일 "행사내용대로 허가할 경우 상업성에 치우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갑작스런 허가불가 공문을 보내온 것.

불교TV는 지난해 12월 행사의 모든 부분에 대해 허가를 받고 이미 전체행사 규모의 50%에 해당하는 생활관 임대관매 계약등을 마쳤고, 생활관을 열 수 없을 경우 사실상 행사예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교문화대제전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불교문화대제전 준비를 총괄해온 불교TV 경영관리국 이호 국장은 "각종 단체의 여의도 행사때마다 생활관부분의 설치는 관례적으로 허용돼 왔다"면서 "지난 4월말 여의도에서 펼쳐졌던 타종교단체 행사에서 야기된 불미스런 문제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불교문화대제전에까지 적용, 이같은 갑작스런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불교TV는 "영등포구청의 이번 결정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넘어 종교편향적 조처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불교문화대제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불교TV는 행사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앞으로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노인들의 실망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복지재단이 지난 14일 탑골공원에서 개최한 노인공양법회는 자원봉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사 주최측으로 참여한 스님들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동참으로 아쉬움이 컸다. 당초 행사취지가 '적극적인 보살행의 실천을 통해 사회의 냉대와 소외속에서 생활의 무료함, 건강의 약화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자리'라는 행사 개최의 의미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이다.

주최측 스님들은 10시30분부터 시작한 행사에 1시간이나 늦게 도착해 의례적인 인사말 몇마디를 남긴채,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는 물론 노인들에게 "맛있게 드시라"는 한마디 인사조차 없이 행사장을 휑하니 떠나 버렸다. 오랫동안 행사준비에 고생한 봉사자들 뿐만아니라 불교계 행사에 기대를 갖고 몰려든 3천5백여 노인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한국불교사회봉사회 관음화보살은 "절에 가면 스님들은 언제나 저희들을 향해 자비행을 강조하시죠. 그러나 스님들 스스로는 실천하는 모습에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라며 못내 섭섭한 마음을 감추질 못했다.

최순식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몰라도 나는 그저 밥이나 얻어 먹으러 여기에 온게 아니여. 스님도 뵙고 스님들의 모습과 말씀에서 감흥을 얻으려 했는데, 내 욕심이 너무 과한거였나?"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날 법회는 오직 행사개최자라는 생색내기에 급급하게 보였던 스님들의 무성의한 참여로 실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두사미(龍頭蛇尾) 행사에 머물렀다.

불교아동문학
깨달음의 세계
육바라밀
미래의 부처님을 위한 아름답고 진실한 불교동화

어린이들의 고운 심성에 참다운 부처님의 세계를 아로 새겨줄 아름답고 진실한 6가지 불교 이야기

〈깨달음의 세계〉는 불교 아동문학가로 이름 높은 이슬기 선생님이 6바라밀에 관한 내용을 어린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 창작했기 때문에 문학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의 부회장이시며 사단법인 자비와 행함이 하나 되어회의 회장이신 송묵 스님께서 자상하게 감수를 해 주셔서 아동들이 아름다운 정서와 올바른 심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1 베푸는 마음(보시 바라밀)
2 계율을 지키는 마음(지계 바라밀)
3 인내하는 마음(인욕 바라밀)
4 노력하는 마음(정진 바라밀)
5 깨끗한 마음(선정 바라밀)
6 슬기로운 마음(반야 바라밀)

• 책을 지으신 분
■ 이슬기 선생님 한국 불교아동문학회 이사
• 책을 감수해 주신 스님
■ 송묵 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동원정사 주지

도서출판 하나원
서울 마포구 용강동 149-6 전화 : (02) 701-2730, 2731 FAX : (02) 701-2731

성실한 법어, 성실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집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 15) ▶ 제59호(95. 12. 27)
■ 가 격 :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스님을 찾습니다.
● 법명 : 정 민 스님
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연락 바랍니다.
숭덕사 성 진 합장
전화 : 0564-32-8197
휴대폰 : 011-508-0446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0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지회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 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 光 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보리수
취급 품목 각종수입향, 염주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분양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 국가공인기관관리 ·
※ 불자 상담 환영
▶동대문최요지전문상가 8500萬 투자
▶1년후 : 2~3억원 (은행 대출3천만원)
▶본사보장 첫임대시, 保3千, 月90萬 책임보장
▶전화 : (02)264-2512
▶담당 : (과장) 최경란 합장